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주민참여 자원순환 견인

리필샵, 공유물품 대여 등 재활용품, 포인트·물품 교환 MR 입체 체험교육장도 조성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성과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주민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해남형ESG 실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의 핵심거점이 될 자원순환복합센터가 지난 16일 개관됐다.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해남읍 해리에 연면적 1274㎡,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돼 재활용품 교환센터로 중심으로 한 1개월여간의 임시 운영을 거쳐 이날 개관식을 가졌다.

센터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는 비롯해 리필샵,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

여센터, 교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이 운영되며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는 리필샵, 중고물품을 공유하는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등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자원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미디어 파사드와 MR 입체 체험교육장을 조성했다.

주민들이 자원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구성했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총 사업비 93억원이 투입해 스마트그린도시 '뽕뽕한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수거기 등 자원순환 시설물 설치와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16일 자원순환복합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해남=제공

축에 이어 자원순환복합센터가 건립되면서 지역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해남형 ESG환경분야의 핵심 거점

으로 자원순환복합센터가 조성되면서 큰 결실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1번지 해남의 환경가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청소년 체험 부스 운영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이 지난 4일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무안을 불무공원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하여 청소년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19일 무안군에 따르면 부스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이싱 쿠키 만들기'와 가족, 친구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포토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이번 체험 부스에 무안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5명이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적극 홍보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지난 4일 무안군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무안=제공

클라우드 기반 서고 관리 도입 신안군,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

신안군은 기록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고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2024년 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은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기록물의 이관부터 폐기까지의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며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안군은 민간 클라우드에 서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프리트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운영 확장성을 높였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장애 대응에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전산실 대비 자연재해, 전력공급, 보안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세계적으로 시스템 운영 효율화와 비용절감,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이번 서고관리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도입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앞장 서겠다"라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질환자 모니터링 등

강진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온열질환 모니터링을 위해 20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군보건소와 강진의료원이 함께 환자 발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군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더운 날씨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2818명이 신고돼 2022년보다 1250여명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32명 신고됐다. 전남은 222명, 강진에서는 1명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환자의 호흡과 순환을 확

인한 다음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을 섭취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낮12시~오후5시) 작업을 줄이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닦거나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것 또한 예방에 도움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청자공모전 출품작 공모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청자의 분향 강진을 널리 알리고 도자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24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개최한다.

19일 강진군에 따르면 공모전 모집 대상은 청자 태토와 유약으로 제작한 창작품으로 국적과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1인 최대 2건까지 응모할 수 있다. 1차 서류접수는 8월2일부터 8월16일까지로 고려

청자박물관 누리집에서 출품 신청서를 내려받아 박물관 사무실로 방문 제출 또는 우편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실물심사로 진행되며, 도예, 미술사, 공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강진군은 △대상(1점) 1000만원 △최

우수상(2점) 각 500만원 △우수상(2점) 각 200만원 △특선(10점) 각 50만원 △입선(16명) 각 20만원 등 모두 31점을 선정해 총 3220만원의 상금과 상장 등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청자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려청자박물관 전시운영팀(061-430-3752)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도에 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축제 군민 참여 프로그램 공모 무안군, 28일까지

무안군은 오는 6월21일부터 6월23일까지 개최하는 제10회 무안향토갯벌축제와 7월25일부터 7월28일까지 개최하는 제27회 무안연꽃축제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양한 끼와 재능을 보유한 개인·단체·동아리 등에 스스로 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로 무안군 축제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공모는 무대공연, 체험부스 운영, 기타 행사 제안 등 3개 분야이며, 참여 희망자는 군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향토갯벌축제, 연꽃축제와의 적합성, 소요예산, 참여인원, 축제일정, 공연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군민 참여 프로그램을 선정한 방침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영암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다자녀가정 대상... 연 1회 지급

영암군은 오는 6월7일까지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청소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연 1회 선불카드를 바우처를 지급하며 올해는 8월 중 배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자녀 이상 가정의 영암군민인 청소년이고 13~15세는 40만원, 16~18세는 48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문화바우처는 올해 안에 영암군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학원 등 진로 개발 기관, 서점·공방·영화관 등 취미활동 업소, 스포츠용품점·볼링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영암군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중·고교 학생은 학교에서, 다른 지역 학교 재학생과 학교밖청소년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문화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진도군, 지역사회 건강 조사 건강통계 자료 활용

진도군이 오는 7월31일까지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역사회건강 조사는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 지역별로 꼭 필요한 근거 중심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흡연, 음주 등 지역주민의 건강행태와 이환(병에 걸림), 의료이용 등을 조사하며 질병관리청과 보건소가 공동수행한다.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가구원 중 관내 19세 이상 성인 878명을 대상으로 미리 교육받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보건소(061-540-6904)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사전에 세대주 앞으로 가구신청 안내서와 지역사회건강조사 안내문 등의 우편물을 발송해 표본가구를 선정됐음을 안내했다.

참여 독려를 위해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상품권 등 소정의 답례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진도=백재현 기자